

SUMMARY OF THE WORKSHOP OUTCOMES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전문강사단 훈련 워크숍 “도시의 재난 위험 경감:
지역별 샌다이 재난 위험 경감 강령 추진워크숍” 2016.5.17-20



지난 20 년동안 재난으로 미화 2 조달러의 경제적 손실과, 약 44 억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130 만명의 사람들이 사망했다. 자연 재난은 개도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 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사회에 피해를 주었다. 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95% 이상의 사람들이 개도국 국민이다.

도시개발계획을 기후변화적응과 재난위험경감 중심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의 실행과제와 예산 분배를 위해 대중의 요구와 정치적인 결정들을 이끌어내는 데 기초가 되는 새로운 접근법과 메카니즘 (mechanisms) 및 일련의 기술과 역량을 필요로 하며, 이를 구체화하고 강화해야 한다. 목표에 관한 이해 부족, 정부의 정책부족, 정부의 전략적 주요의제로 설정 실패는 주요한 문제점이다.

도시 위험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세계 50% 이상의 인구가 도시지역에서 거주하고 있고, 도시화는 전례없던 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20 년간 세계 인구는 20 억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30 년엔 60% 이상의 세계인구가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측되며, 개도국의 광범위한 집단거주지역이나 광역도시로의 기록적인 집중이 예상된다. 도시의 재난취약성은 특히 고위험 도시지역 안에 정착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중된다.

불행히도, 도시개발계획은 지진, 수문기상학적 위험과 같은 위험요인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세계는 문제해결을 위한 일련의 혁신적인 방안을 개발하고 도시 거주민을 위한 더욱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복원력을 구축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러시아의 도시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기존의 재난관리와 기존 도시계획 과정에 재난위험경감과 기후변화적응을 포함하는 것은 도시복원력 구축을 위한 노력에 효과를 발휘 할 것이다.

이번 워크숍은 러시아 연방정부의 EMERCOM, 러시아 민방위 및 비상관리 과학 연구소(연방과학 및 첨단기술센터 FSTC), 바우만 모스크바 기술대학과 UNISDR 동북아시아사무소 및 재난경감 국제교육 훈련연수원이 공동 개최하였다.

주요 참석자는 러시아 민방위 및 비상관리 과학 연구소의 주요 직원, 바우만 모스크바 기술대학 (BSTU)의 교수들과 전문 교육담당자 및 지역 정부 혹은 민간부문의 관리자들과 전문가들이었다.



전문강사단 훈련 워크숍 주요목표 및 활동

- 재난위험감소를 위한 2015-2030 센다이강령 이행, 국가와 지역차원의 실행과 정부의 역할 이해
- 재난위험경감에 대해 도시/지방정부 훈련을 기획하고 진행하기 위한 지식과 방법론 교육, 특히 도시복원력 관련 자체평가법 및 지방정부자체평가도구(LGSAT)사용, 도시복원력스코어카드, 새로운 센다이강령의 지역도시지표도구 및 도시복원력행동계획 개발 또는 강화
-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기후변화적응과 재난복원력강화 개발을 위한 정치적 합의와 사회적 요구 확대
- 도시 및 자치단체를 위한 후속조치 전략과 로드맵 준비
- 재난위험경감과 기후변화적응 의제를 포함한 국가개발계획 수립과 관련 시스템, 정책, 과정에 이 의제가 포함될수 있도록 국가계획 입안자와 정책결정권자의 참여 확대
- “기후변화와 재해에 강한 도시만들기 캠페인”에 대하여 배우고, 캠페인 평가 및 계획 도구, 교육자료들이 지역의 재난 복원력을 구축하는데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해
- 도시를 안전하게 만드는 “기후변화와 재해에 강한 도시만들기 캠페인”의 10가지 핵심사항에 기초하여 도시복원력실행계획 개발과 이행 관련한 새로운 기술을 획득하고 역량을 강화 함

전문강사단 훈련 워크숍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 러시아 국가 전문가들이 속한 훈련팀은 바우만 모스크바 기술대학에 기반을 두고있다. 18명의 훈련담당관으로 구성된 팀이 국가지정 트레이너로 승인받았고, 러시아의 모든 지역에서 UNISDR ONEA-GETI 훈련 과정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이미 MCR 캠페인에 가입을 신청했거나 관심있는 4개의 도시에 도시평가도구 및 도시 복원력 기술지원을 제공할 목적으로 훈련받았다
- 지방정부자체평가도구(LGSAT)와 복원력스코어평가도구(Resilience Scorecard Assessment Tools)와 UNISDR GETI 계획 방법론은 러시아어로 번역되었고 연방과학첨단기술센터(FSHTC)와 바우만모스크바공화대학(BSTU) 교육과정 학과와 연구과정에 통합되었다.
- 러시아의 비상대책부(MoES)/EMERCOM는 민방위 및 비상대책관리 연구소 (ICDEM of EMERCOM)의 연방과학 및 첨단 기술센터(FSHTC)를 MCR 글로벌 캠페인 추진 및 확대하는데 있어서 책임기관으로 공식 지정했다. MCR 캠페인이 러시아에서 성공적인 추진 및 확장을 위해 Igor Vladimirovich SOSUNOV(EMERCOM, ICDEM의 부국장)박사와 Irina Yurievna OLTAN (FSHTS의 대표)박사를 UNISDR 연락담당관으로 지명했다.
- 바우만 모스크바 기술 대학 (BSTU)의 총장인 Anatoli Alexandrovich ALEXANDROV 박사는 UNISDR ONEA-GETI와의 협력 확대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또한, UNISDR 과의 연락을 위해 Dmitri KOPITOV 를 연락담당관으로 지정했고, 뿐만 아니라 UNISDR-GETI의 도시 재난 감소: 도시 복원력 평가 및 실행계획훈련과정 관련한 새로운 자료, 모듈 및 도구들을 번역하여 대학 교과과정에 적용 및 통합 진행 속도를 높이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또한, UNISDR GETI와 더 많은 합동 교육 행사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싶다고 했으며, 러시아와 다른 지역의 러시아어 사용 국가에서 신규 교육 과정을 공동으로 설계 및 제공하는 기회를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 MCR캠페인에 참여를 원하는 4개 도시는 FSHTC와 BSTU에게 자신들의 신청과정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워크숍 중 별도로 노릴스키, 이루크추크와 소치 시 대표들과 함께 개별 회의 세션을 진행하였으며, 이들에게 “어떻게 캠페인에 지원하는가” 에 대하여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했고, MCR 글로벌 캠페인을 위한 지역전문가 및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국가허브로서, EMERCOM 러시아 정부가 지정한 FSHTC와 BSTU로부터 어떻게 직접적인 기술 지원을 받을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 FSHTC와 BSTU는 2016년 7월 마지막주에 별도의 합동 훈련워크숍을 진행하기로 합의했고, UNISDR GETI에게 기술적 지원과 러시아로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보내줄 것을 요구했다. 후속-워크숍의 목표는 새로이 위촉된 국가 훈련전문가 팀이, 2016년 6월에 MCR국제캠페인에 참여한 4개도시를 위해, 4개의 그룹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진행하는 것이다.
- 러시아의 더 많은 도시들이 MCR 캠페인에 더 큰 규모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로드맵(초안)과 실행계획이 개발되었다. 향후 러시아 언어를 사용하는 다른 CIS국가의 지역에서의 진행 가능성을 고민하고, 러시아 안에서의 추진을 이끌 기관으로서 FSHTC 및 BSTU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도 규정하였다.

더보기: <http://www.preventionweb.net/events/view/>

UNISDR ONEA-GETI: <http://www.unisdr.org/incheon>